

국군수도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의 가동으로 공공의료에 기여하다

국군수도병원 감염관리실장
오홍상 중령

하얀색 우주복 같은 옷을 입은 의료진들이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병실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모습은 익숙한 장면입니다. 2015년 우리나라에 메르스 유행이 발생하면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이 국민들에게도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국군수도병원의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이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운영되어 왔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과 장병들은 드물 것입니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은 메르스, 에볼라 등과 같이 전염력이 강한 신종 감염병 환자들의 입원 치료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에서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감염병 관리 시설입니다. 현재 전국에 29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국군수도병원은 그 중 유일한 군 의료시설입니다.



그림1. 국군수도병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국군수도병원은 2006년 질병 관리 본부로부터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을 지정받아 8개의 음압 병실(1인실 3개실, 다인실 5개실)로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2009년 신종플루가 유행했을 때 국내 첫 확진 환자가 입원했었고 2015년 메르스 유행 때는 확진 환자 3명, 의심 환자 14명, 관찰 25명(민간인 6명, 군인 35명, 주한미군 1명)을 진료했습니다. 이후에도 현역 장병과 경기도 남부에 거주하는 도민 중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의심 환자를 지속적으로 진료해왔습니다.

2016년, 시설 노후화와 감염관리 수준의 향상을 위해 시설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2017년 10월부터 병동 리모델링을 시작하였으며 2018년 8월 말 완공되었습니다. 이로써 음압 1인실 8개실과 각 전실이 마련되었고 독립된 냉난방, 급배기 시스템 등 지원 시설도 보강되어, 이전보다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진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메르스 확진 환자 발생과 관련하여 적시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9월 20일로 예정되었던 개소일을 앞당겨 9월 11일부터 운영을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의심 환자 5명(군인 1명, 민간인 4명)에 대해 진료하였습니다. 의심 환자 중 확진된 인원은 없으며, 전원 쾌유하여 퇴원하였습니다.

국군수도병원은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어느 병원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최고의 감염병 전문 시설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이번 메르스 확진 환자 발생과 관련하여 의심 환자에 대한 진료를 이미 시작하였고 담당 의료진들은 연습이 아닌 '실전'을 겪으면서 전문성을 더 높이고 있으며, 24시간 진료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 한 건의 추가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면서 환자에게 완벽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림2. 국군수도병원 위기대응 모의훈련

아울러 국군수도병원의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은 2019년에 개소할 '국군외상센터'와 함께 군 의료가 담당하고 있는 공공의료의 면모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앞으로 전문적인 진료와 민·관·군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국가 차원의 신종 감염병 대응에 더욱 기여할 것입니다.